디지털 접근성 취약한 전남, 은행 이용 갈수록 힘드네

점포 줄어 22개 시·군 4대은행 36개·광주은행 37개만 남아
대중교통 인프라 열악 지역민 불편…광주도 점포수 크게 줄어

전남지역에서 은행 이용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심각한 고령화로 이동이 쉽지 않은데다, 모바일·디지털 접근성도 취약한 상황에서 은행 점포는 줄어들기만 해 금융 서비스에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진구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 위치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과 지방은행(광주) 점포 수는 지난 2020년 129개에서 올해 8월 기준 116개로 13개 줄었다. 4대 시중은행은 7개, 광주은행은 6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전남도 지난 2020년 90개였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점포 수가 올 8월 기준 73개로 17개 감소했다.

은행별로 보면 4대 시중은행에서 12개, 광주은행은 5개 점포가 폐점했다. 이밖에 저축은행도 1개 점포가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점포 감소율은 전국 13위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실제 점포 수는 세종시(20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상황이다. 당장, 전남 22개 시·군 소재 4대 시중은행 점포 수는 36개에 불과했다. 1개 시·군별로 시중은행 점포가 2개도 없는 셈이다.

그나마 지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광주은행의 점포 역시 최근 5년 새 5개 줄어 37개만 남은 실정이다.

전남의 경우 지역민의 대다수가 고령층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접근성도 취약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인프라도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 그나마 있던 인근 은행 점포들이 사라지면서 지역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은행들이 지역 점포들을 정리한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여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적자점포가 대폭 증가해, 각 은행들이 점포 축소를 통한 비용 효율화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시 소재 은행 점포 가운데 적자점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20년 기준 10.1%였지만, 점포 수 감축을 통해 5.2%로 줄였다. 같은기간 전남 역시 11.1%에서 2.7%로 적자점포 비율을 대폭 낮췄다.

이헌승 의원은 "지역경제 침체로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들마저 대규모 점포 정리를 단행하면서 지역민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지역민의 금융 소외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기준 4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점포수는 최근 5년 간 4488개에서 3837개로 651개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고객이 4대 시중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점포 정리를 통한 비용 효율화를 위해 지방 점포들을 폐점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최근 5년간 시중은행 점포 19곳이 문을 닫았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식품 수출 호조…전년 동기 대비 21.6% 늘었다

8월 기준 광주 9296만 달러 6.8%·전남 5억2019만 달러 24.7% 늘어

광주·전남의 농수축산물로 만든 다양한 식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4년 8월 누계 기준 광주·전남지역 식품류 수출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식품산업 수출은 6억1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6% 증가했다. 광주는 9296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8%, 전남은 5억2019만 달러로 24.7% 늘었다. 광주는 담배와 김 조제품 등이, 전남은 김, 배, 유자의 상위 3대 품목이 수출을 견인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광주 지역 8월 누계 기준 식품류 상위 5대 수출 품목은 맥주(34.3%), 김(22.8%), 비 알콜 음료 등 기타 음료(20.3%), 담배(17.2%), 기타조제식료품(5.4%) 이며, 전년 동기 대비 김(20.7%), 비 알콜 음료 등 기타음료(34.0%), 담배(712.5%), 기타조제식료품(34.5%)은 증가했고, 맥주(46.4%)는 감소했다.

전남은 8월 누계 기준 식품류 상위 5대 수출 품목은 기타 조제식료품(50.5%), 김(23.1%), 배(9.6%), 전복(8.6%), 과실류 가공품(8.2%)이며, 전년 동기 대비 기타조제식료품(6.0%), 배(71.7%)는 증가했고, 김(18.0%), 전복(3.8%), 과실류 가공품(14.6%)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8월 누계 기준 광주 상위 5대 수출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 홍콩, 인도 등으로, 전남 상위 5대 수출국은 일본,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등으로 나타났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HUG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 절반만 회수

광주·전남 5년간 578억원 갚아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갚아준 전세자금의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광주·전남에서만 최근 5년 간 578억원을 대신 갚아줬는데, 회수액은 296억원으로 51.2%에 불과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에서 306억원, 전남에서 27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금액은 전세사기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던 지난해 급증했는데, 광주에서는 지난 2020년 8억원에서 지난해 111억원으로 급증했고, 올 5월까지도 6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지난 2020년 29억원에서 2023년 8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그러나 회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기간 광주의 회수된 대위변제금액은 165억원으로 지급액의 53%에 불과했고, 전남은 48.1%(131억원)에 그쳤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 다도해 '해상 실크로드' 연결되면 세계적 브랜드 될 것"

광주상의 광주경제포럼
'부동산 이슈 분석·시장 전망'

"전남의 다도해가 연륙·연도교,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으로 하나로 이어져 '해상 실크로드'를 조성하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날 것입니다. 광주는 도시 확장에 한계를 갖고 있어 도심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4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271차 광주경제포럼에서 '2024 부동산 이슈 분석 및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박갑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가 강의했다. 〈사진〉

그는 전남은 호남고속철 2단계·경전선·전라선 등 철도 기반시설 및 목포 등 서남권 일대 관광 인프라 설치, 광주는 광주공항 이전 및 도심 재정비가 부동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교수는 "목포·여수·통영 등 3개의 거점으로 구성된 다도해는 이제 휴가지가 아니라 주말 관광지로 개념이 바뀔 것"이라며 "이러한 관광지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형태가 없어 제주도를 대체하는 브랜드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는 동북과 서남 측면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광주공항, 산악 등으로 막혀 있어 응집력 있게 발전하기 어려운 도시"라며 "도시철도 2호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 확장이 아니라 구도심 재개발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는 아파트 주거비율이 81.3%로 전국 평균(64%)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다만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23.4%에 달해 재건축 수요가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에 따라 시장에 급매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최근 취임한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박완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등이 참석해 지역 경제·금융 기관장, 기업 대표 등과 상견례를 가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분기 건설업 매출증가율 1% 미만으로 '뚝'

영업이익율은 2%대로 떨어져

올해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건설업의 지표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2024년 2분기 건설업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분기 건설업의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0.86%에 그쳤다. 이는 올해 1분기(3.97%)보다 3.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건설업 매출액 증가율은 작년 2분기까지만 해도 12.31%에 달했지만, 작년 3분기 11.87%, 4분기 6.35% 등으로 계속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매출액 증가율과 함께 성장성 지표로 꼽히는 총자산 증가율도 작년 2분기 2.26%에서 올해 2분기 2.20%로 낮아졌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과 세전 순이익률 역시 하락했다.

2분기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작년 동기(3.35%)보다 0.38%포인트 떨어진 2.97%에 그쳤고, 세전 순이익률은 0.16% 하락한 3.24%에 머물렀다.

수익성 악화와 높은 금융비용 탓에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작년 2분기 238.68%에서 올해 2분기 229.70%로 8.98%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건설업 차입금 평균 이자율은 4.54%로 작년 동기(3.96%)보다 0.58%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건설업의 수익·성장성 지표가 나빠진 것은 국내 기업들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과 대조적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 2만3137개(제조업 1만1651개·비제조업 1만1486개)의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1분기 1.2%에서 2분기 5.3%로 높아졌다.

세전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0.79%포인트, 2.60%포인트, 165.79%포인트 상승하면서 6.74%, 6.24%, 418.22%를 기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0대 그룹 모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4년간 100건 적발

LG·SK·롯데·포스코 순 많아

국내 10대 그룹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이력이 최근 4년 간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위험물질 관리에 소홀해 근로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삼성을 비롯한 SK, LG 등 국내 10대 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건수는 9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기업의 화관법 위반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24건, 2023년 26건, 올해 7월까지 21건으로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화관법은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 법안으로 지난 2015년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GS칼텍스 여수공장과 SK에너지 울산공장, LG화학 김천공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법안 강화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0대 기업 중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한 기업은 LG(23건)였으며 SK(17건), 롯데(13건), 포스코(12건), 한화(11건), GS(10건), 삼성(3건), 현대자동차(3건), 농협(2건), HD현대(1건) 순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국세청 관서장 회의…5대 핵심 과제 추진

광주청 으뜸직원 선발 시상

광주지방국세청이 24일 지방청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등 1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광주합동청사 대강당에서 '2024년 하반기 광주지방국세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광주청 최초로 일선 세무서 지서장, 과장 및 지방청 팀장, 직원 대표까지 참석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라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보다 더 내실있게 공유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사정을 예민하게 살피고 섬세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5대 추진 과제로 납세자 응대 친절도 제고, 업무량 감축, 인사·청사·악성 민원 관리 등을 꼽았다.

관서장 회의에 앞서 박 청장은 전주·북전주 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수 제작한 '광주국세청 으뜸인' 액자와 기념품을 수여했다.〈사진〉 '광주국세청 으뜸인' 시상 및 소통 행사는 업무 성과, 조직기여도 및 평판이 우수한 직원을 격려하는 행사로, 역대 광주지방국세청장 중 최초로 실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31.68 (+29.67)
↑	코스닥	767.35 (+12.23)
↓	금리 (국고채 3년)	2.854 (-0.010)
↓	환율 (USD)	1335.20 (-0.70)

중기중앙회 광전본부 외국인력 활용 설명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는 10월 2일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E-9)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10월7일 시작되는 2024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에 앞서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오후 2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외국인 도입 허용 업종 추가 등 올해 고용허가제도 개선 내용 안내와 신청 요건 및 방법,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현장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외국인력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외국인 인력 활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신청에 대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로 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